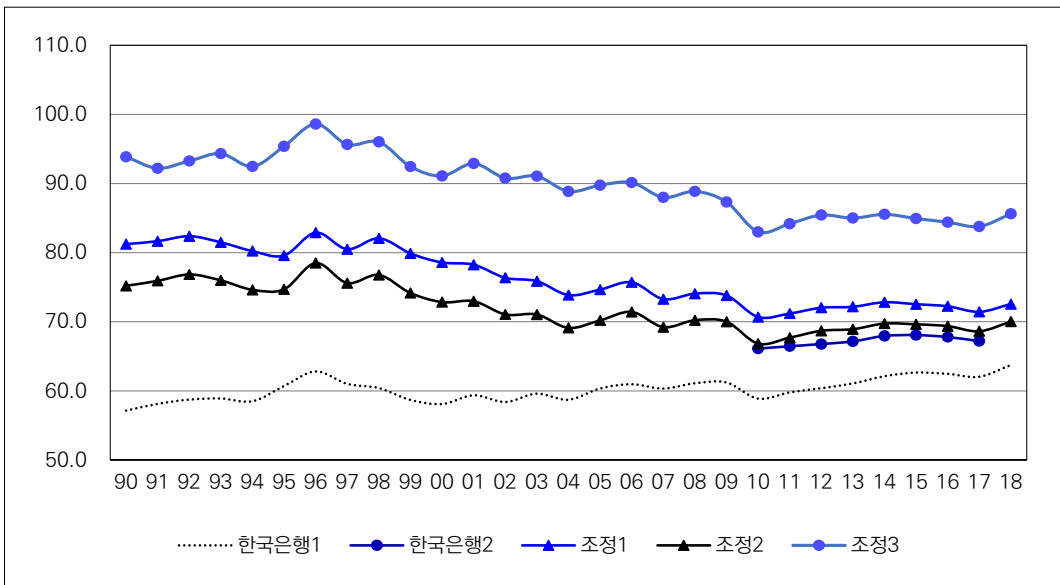


자영업 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

-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, 외환위기 이후 60%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국제금융위기 때 전년대비 2.3%p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.
-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(그림 1의 한국은행 1)은 63.8%(2018년)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해 1.0%p, 2010년에 비해 4.9%p, 2017년에 비해 1.7%p 상승함.

[그림 1] 측정방법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추이

(단위 : %)



주 : 1) 한국은행1은 한국은행에서 측정하여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임. 한국은행1=피용자보수/요소비용국민소득*100.
 2) 한국은행2는 가계와 비영리 법인의 경우, 영업잉여 대신 혼합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함(한국은행2=(피용자보수+혼합소득)/요소비용국민소득*100).
 3) 조정1=(피용자보수+개인영업잉여)/요소비용국민소득*100.
 4) 조정2=피용자보수/(요소비용국민소득-개인영업잉여)*100.
 5) 조정3=(피용자보수+((피용자보수/임금근로자수)*비임금근로자수))/요소비용국민소득*100.
 자료 : 한국은행, 『국민계정』, 각 연도.

-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(=국민소득) 중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(=노동소득)이 차지하는 비중으로, 어떤 소득(요소비용국민소득, 국내총부가가치 등)을 국민소득으로 사용하는지, 노동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고려하는지 측정방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차이를 보임.
 -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‘요소비용국민소득(=피용자보수+개인영업잉여+국의순수취요소소득, 국내총생산>국내총부가가치>요소비용국민소득)’을 국민소득으로, 임금근로자의 ‘피용자보수’만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측정함.
 -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이익으로 간주하여 자본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 주요항목인 ‘노동소득’에 자영업자의 소득, 특히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.¹⁾ 결과적으로 이 측정방법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만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측정되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0.7%(2019년, 무급가족종사자 제외)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 멕시코, 터키, 그리스 등과 상위국가군에 포함되어 있고, 특히 자영업 10명 중 7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환경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자영업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기준년도를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개인 비법인 기업의 ‘혼합소득’ 규모를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, 자영업자의 소득이 고려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(그림 1의 한국은행 2)은 2017년 67.2%로 혼합소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5.2%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‘혼합소득’은 가계 비법인 기업의 소유주(=주로 소규모 자영업자)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가계 비법인 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(²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(한국은행, 2015)).
- [그림 1]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Gollin(2002)이 제시한 자영업 소득을 노동소득에 고려하는 세 가지 방법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임.
 - Gollin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 측정되므로 ① 개인영업잉여를 모두 노동소득으로(조정1=(피용자보수+개인영업잉여)/요소비용국민소득*100), ② 자영업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구성 비중이 다른 경

1)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소득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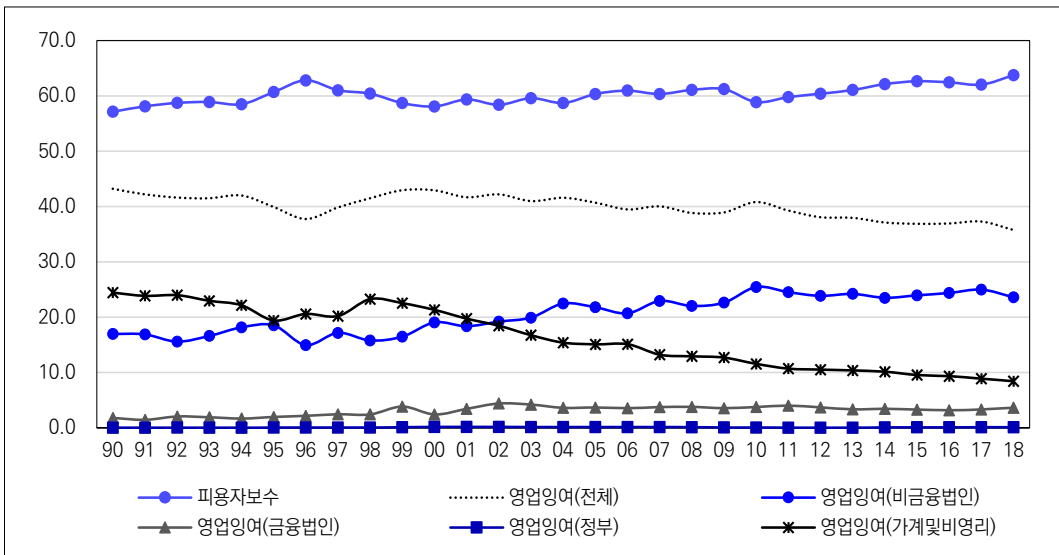
제 부문과 동일하다고 여겨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개인영업잉여를 제외한 소득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으로(조정2=피용자보수/(요소비용국민소득 - 개인영업잉여)*100), ③ 자영업의 평균임금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소득과 동일하다고 여기는(조정3=(피용자보수+(피용자보수/임금근로자)*비임금근로자)/요소비용국민소득*100)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함.)

- 자영업 소득을 노동소득에 귀속시켜 산정한 노동소득분배율(그림 1의 조정 1, 조정 2, 조정 3)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임.
- 외환위기 이후부터 국제금융위기 이전 동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60% 내외에서 움직인 반면 자영업 소득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동 기간 빠르게 감소함. 2010년 급락한 이후 측정방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움직임이 관찰됨.

-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구성항목별 비중을 보면 피용자보수는 60% 수준에서 최근에는 완만한 증가가 관찰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감소하고 있음.
 -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감소는 가계와 비영리 법인의 영업잉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함. **KLI**

[그림 2]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구성항목별 비중

(단위 : %)



자료 : 한국은행, 『국민계정』, 각 연도.

(김복순,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)

2) 이병희(2014), 『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』, 한국노동연구원.